

임재 서찬규의 강학 공간 낙동정사의 건립과 학계 구성

우진웅*

- I. 서언
- II. 임재의 학문과 삶
- III. 낙동정사 건립과 비용 조성
- IV. 낙동정사의 학계 구성
 - 1. 문중별·지역별
 - 2. 파리장서 서명자
 - 3. 주요 인물
- V. 요약 및 결언

국문초록

대구 출신의 유학자인 임재 서찬규(1825~1905)는 학문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는 성품과 행동으로 지역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낙동정사는 제자들과 후손들에 의해 1901년에 건립된 임재의 만년 강학 공간이었다. 또한 임재의 사후에도 지역 지식인들의 학문 수양과 토론의 공간이었고, 학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모임 공간이기도 하였다. 현재 대구시 달성군 화원유원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낙동정사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 지식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jwoong@koreastudy.or.kr

않았지만 지금은 옛 모습이 사라지고 그 역사도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그러나 낙동정사에서 전해지는 5천여 점의 기록 자료가 남아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곳의 역사에 대해 재조명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낙동정사를 건립하기 위해 여러 인물들이 추진했던 과정과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조성 등을 다루었다. 또한 낙동정사에서 임재 서찬규의 제자들이 결성했던 학계의 명단을 통하여 그 규모와 문중별, 지역별 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명단에는 유림의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의 대구지역 서명자 9명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낙동정사에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주제어

임재 서찬규, 낙동정사, 임연당, 파리장서, 파리장서운동, 대구, 임재학파

I. 서언

조선 말기 대구 출신의 유학자인 임재 서찬규(1825~1905)는 학문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는 성품과 행동으로 당대 지역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는 22세에 생원시에 입격하고 4년 뒤인 1850년에 당시 기호학의 유종으로 학계를 주도한 매산 홍직필을 찾아뵙고 배움을 청하였다. 이후 성균관과 매산이 살던 노호(현재의 노량진), 대구를 왕래하면서 배움을 이어갔다. 비록 학문을 배운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매산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철학과 사상을 정립시켰고, 학문적으로 남인이 주도했던 지역에 살면서 기호학파의 입장을 지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학행과 영향력이 점차 알려지게 되어 관직에 여러 번 천거되었다. 그러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으며, 그의 문하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임재는 38세인 1862년에 현재의 대구시 남산동에 ‘수동재’라는 서실을 지어 이곳을 강학과 학문 수양의 장소로 삼았다. 그러나 수동재는 점점 늘어나는 제자들을 이끌면서 강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임재의 후손들과 원근의 제자들은 새로운 강학소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현재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유원지 인근¹⁾에 위치한 낙동정사는 1901년 지역 사림들과 제자들이 힘을 모아 임재의 만년 강학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어진 건물이다. 낙동정사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옛 건물의 모습도 사라진 채 남아 있다.

지금까지 임재 서찬규에 대한 연구는 그의 학문적 위상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재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임재일기』²⁾에 수록된 내

1) 사문진주막촌 입구의 뒷산 약 10-2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임재선생 주손의 얘기에 의하면 원래 낙동정사의 방향은 낙동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서향이었으나 지금은 남향으로 바뀌었고, 건물의 위치도 조금 바뀌었다고 한다.

2) 한국국학진흥원, 『국역임재일기』,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1.

용을 바탕으로 하여 27회에 걸친 그의 과거 도전 과정과 끈질긴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성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문과에 합격하기 위한 집념 등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을 복원하고자 하였다.³⁾

낙동정사는 임재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거쳐 간 공간이었지만 대구에서도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낙동정사와 관련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낙동정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그곳의 역사에 대해 재조명해볼 수 있다.

『임재문집』의 책판을 비롯해 각종 고문서, 고서 등 약 5천 점에 달하는 낙동정사 전래 자료들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정리하여 2019년에 목록집이 발간되었다.⁴⁾

특히 자료 중에는 19세기 말 임재의 제자들과 후손들이 주도하여 낙동정사의 건립을 위한 준비 과정과 이후 1900년대 중반까지 낙동정사의 운영 및 강학 활동, 임재의 제자들로 결성된 학계의 구성 등을 수록한 중요한 자료가 다수 전해지고 있어 주목을 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낙동정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낙동정사의 건립 추진 과정과 건립 비용 조성 내역 등을 살펴보고, 600여 명 이상이 수록된 학계의 계안을 통하여 계원의 문중별, 지역별 구성과 주요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⁵⁾ 특히 인물 중에는 1919년에 작성된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의 대구지역 서명자로 항일독립 운동에 앞장섰던 상당수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낙동정사에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3) 송만오, 「성공을 위한 서찬규의 집념과 노력」-조선 후기 어느 한 향촌 양반의 과거 도전기, 『한국학』 제35권 4호, 2012, 115-144쪽.

4)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목록집 56, 『달성서씨 낙동정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9.

5) 주로 전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낙동정사의 건립과 학계 구성 등을 다루었을 뿐 임재의 학문적 성과나 임재학파의 전개와 의미, 강학활동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II. 임재의 학문과 삶

임재 서찬규는 1825년 11월 15일 徐洪烈과 흥해배씨 應綏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22세에 생원시에 입격하고 4년 후인 1850년에 梅山 洪直弼(1776~1852)을 처음 찾아뵙고 배움을 청하였다. 홍직필은 우암 송시열을 이어 당시 기호학계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철종 즉위 후에는 안동김씨 세도 정권의 예론을 자문했던 뛰어난 대학자였다.

매산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임재일기』⁶⁾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서찬규는 1850년 1월 26일 대구에서 출발하여 2월 4일 성균관에 도착하였고, 4월 5일에 매산의 강학소인 노호(驚湖, 현재의 노량진)에 처음 방문하였다. 당시 매산은 75세의 노령으로 병을 앓고 있었다. 매산은 서찬규의 나이와 언제 소과에 입격했는지를 질문하였고, 『격몽요결』을 읽을 것을 권하였다. 또한 대구의 인물이나 풍토, 서침⁷⁾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에도 방문하여 『小華外史』를 공부하였다. 이후 4월 10일 임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어 대구로 귀향하기 전 인사차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매산은 ‘독실하게 믿으면서 학문을 좋아하고, 죽음으로 지키면서도 도를 행할 줄 알아야 한다.[篤信好學 守死善道]’라고 언급한 뒤 항상 이 여덟 글자를 부적으로 삼아 마음에 새길 것을 강조하였다. 임재는 이제서야 선생을 찾아뵙고 받들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이별하였다.

매산과의 첫 만남은 일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임재의 삶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임재는 약 5개월 동안 고향에서 머물다가 9월 16일에 다시 상경 길

6) 임재 서찬규가 21세인 1845년 1월 1일부터 37세인 1861년 5월 20일까지 일상을 기록한 일기.

7) 徐忱: 자 聖默, 호 龜溪, 정몽주의 제자. 첨지중추원사, 전의소감, 전라도처치사 등 역임. 세종연간에 당시 군사적 요충지인 달성을 국가에 헌납하자 나라에서 포상을 내려주려 하였으나 포상 대신 어려운 대구 백성들의 환곡 이자를 경감해 주도록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에 올라 9월 25일에 성균관에 도착하였다.⁸⁾ 성균관에서 며칠 동안 여정을 풀고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산에게 배움을 받았다.⁹⁾

1년 후인 1851년 9월 3일에 다시 상경 길에 올라 9월 16일에 매산을 다시 찾아뵈었는데, 예전보다 선생의 몸이 편치 않으신 것을 보고 매우 염려하였다. 그로부터 11월 6일까지 수학하였고, 11월 15일 대구의 집에 도착하였다.¹⁰⁾

두 달 후 1852년 1월 24일에는 종친회의 요청으로 종가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¹¹⁾ 상경길에 올라 2월 4일에 성균관에 도착했으며, 2월 9일에 선생을 찾아뵈었다. 이로부터 약 한달 보름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수학하였으며, 3월 20일에는 선생과 기약 없는 이별을 슬퍼하면서 학문에 더욱 매진하라는 선생의 조언을 들으며 다시 귀향길에 들어섰다.¹²⁾

대구에 머물면서도 임재는 선생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면서 다시 뵈고 배우고 싶은 마음을 항상 내비쳤지만 이후 선생과의 만남은 현실이 아닌 꿈에서만 이루어졌다. 『국역임재일기』에 기록된 선생과 만난 세 번의 꿈은 모두 매산이 별세한 이후였다. 첫 번째는 7월 20일에 선생이 나타나는 꿈이었다. 노호에서 선생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꿈이 아니고 진짜로 만나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7월 30일에 선생에게 문집의 초고를 받아 잘못된 글자를 선생이 불러주면 붉은 먹으로 수정하는 꿈을 꾸었다. 이후 8월 5일에 지난 7월 17일에 선생이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두 번의 꿈은 모두 선생의 사후였고, 부고 소식을 듣기 전에 꾸는 것이었다. 세 번째 꿈은 발인에 맞추어 8월 25일 대구를 출발하여 9월 3일에 선생에게 곧은 지팡이를 올리는 꿈이었으며, 이틀 후 노호에 도착하였으나 발인이 이틀 지났음에 통곡하였다.

이처럼 매산과의 인연은 길지 않았지만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그는

8) 한국국학진흥원, 『국역임재일기』, 298쪽.

9) 『就正日錄』 10월 1일~10월 24일.

10) 한국국학진흥원, 『국역임재일기』, 338쪽.

11) 종손의 입후와 관련하여 예조에 입안을 발급받기 위함.

12) 한국국학진흥원, 『국역임재일기』, 357쪽.

학문적으로 당시 남인들이 주도했던 영남 지역에서 기호학파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었다.

임재는 38세 되던 1862년에 현재의 남산동에 ‘수동재’를 지어 학문 수양과 강학의 장소로 삼으면서 지역의 지식인들과 정치·사회적인 여러 문제를 토론하였다. 그의 성품과 학행이 지역을 중심으로 알려지자 경상도관찰사 등이 벼슬을 천거하였고, 1888년에는 고종이 의금부도사로 천거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공부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그는 ‘인간의 원래 성품은 착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흐려지니, 수양으로 착한 성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죽음에 가까워서도 후손과 제자들에게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수신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바른 길로 갈 것을 당부하면서 1905년 정월 22일 81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Ⅲ. 낙동정사의 건립과 비용 조성

1. 건립 과정

임재 서찬규의 강학 공간은 거주지였던 현재의 남산동에 있었던 ‘수동재’¹³⁾라는 곳이었다. 그러나 수동재는 늘어나는 제자들을 이끌면서 강학하기에는 협소했을 뿐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건물이 쇠퇴해져갔다. 지역의 유학 부흥을 위해서도 새로운 강학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임재의 후손들과 원근의 제자들은 새로운 강학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낙동정사를 건립하기 위한 움직임은 1899년부터 시작되었다. 임재의 제자들은 새로운 강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의논하였으며, 내각대신과 관찰사에게 청원서를 보내 강학소의 건립 허가를 요청하였다.

1901년 4월 우성동을 대표로 하여 박승동, 서진보, 이화상 등 114명의 제자들은 강학소를 건립하여 지역의 유풍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청

13) 守東齋: 1862년 건립. 대구 남산동 인근의 東岡 언덕에 위치했음.

원하였다.¹⁴⁾ 비슷한 시기 대구 남산유계회에서 18명이 연명 발의하여 관찰사에게 청원하였고,¹⁵⁾ 5월에는 남산유계회 16명이 대구군수에게 청원하였다. 이어 7월 9일에 의정부찬정내부대신 이진하는 경상북도관찰사서리 대구군수 김병정에게 훈령을 내렸고,¹⁶⁾ 7월 21일에 관찰사 이유인이 대구군수 김병정에게 내린 훈령에는 “강학소를 건립하는 일로 우성동 등 대구사립 등이 올린 품목을 살펴보고 건립의 당위성을 확인하였으며, 달성군에 있는 ‘배산’¹⁷⁾에 강학소를 지어 강학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¹⁸⁾이라고 허가하였다. 이렇듯 낙동정사의 건립은 1899년부터 임재의 후손과 제자들의 의논을 거쳐 건립 준비를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 관청의 허가를 받아 1901년에 건립하였다. 1901년 당시 77세였던 임재는 삶을 마친 1905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낙동정사에서 학문을 닦으며 강회를 열었다. 낙동정사는 임재의 사후에도 지역 지식인들의 학문과 토론의 장이 되었고, 학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계의 모임 공간

14) 1901년 4월 禹成東, 朴昇東 등 114명이 내각대신에 올린 청원서

朴昇東, 徐陳甫, 李華祥, 禹在東, 禹東珪, 具然浩, 李達祥, 尹鶴一, 李定祥, 李在春, 禹夏圭, 徐丙彥, 禹夏轍, 李能祥, 具達書, 徐丙祚, 徐罔奎, 李柄達, 禹東植, 禹在書, 禹東垣, 李相斗, 尹奉周, 禹纘基, 李福來, 禹夏繼, 李柄達, 徐潤基, 禹夏承, 李海春, 徐鎮禹, 具仁書, 全奎漢, 李柄運, 具纘書, 李柄春, 徐光奎, 徐象奎, 李舜儀, 徐永年, 李漢春, 徐桂鉉, 徐康洙, 夏東箕, 徐鐸坤, 徐南洙, 崔瑠煥, 具聖書, 全斗漢, 李柄泰, 楊在輝, 李柄迪, 禹夏教, 崔仲武, 禹東奎, 徐載鎬, 李柄吉, 林載鉉, 禹夏敦, 徐灝永, 禹善基, 徐永昱, 禹涇東, 禹東狩, 李柄遇, 夏啓永, 全柄壽, 徐萬坤, 具禹書, 李宗熙, 徐大洙, 全一洪, 具然雨, 禹龍基, 禹夏甲, 徐在憲, 朴純, 申斗鉉, 李晚珪, 申普均, 李榮珪, 徐鳳均, 申鉉穆, 鄭德述, 徐翰基, 柳載坤, 徐錫顯, 金文燮, 李泰基, 黃甲性, 鄭洪基, 鄭璣淵, 李泰和, 申浚均, 申達均, 申鉉健, 鄭在燮, 李極壽, 李善燭, 崔祚應, 徐道俊, 黃佑性, 裴萬慶, 趙炫昇, 鄭明錫, 梁慶龍, 鄭晚秀, 金斗潤, 梁尙仁, 金容瀚, 梁尙奎, 徐碩基, 金相斗

15) 1901년 4월 儒契會中 16명이 관찰사에게 보낸 품목(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朴昇東, 徐萬奎, 具然浩, 徐鎮甫, 禹夏轍, 參奉 全錫斌, 幼學 李相斗, 禹成東 進士 李柄達, 蔡河誠, 崔象奎, 進士 尹鳳周, 幼學 楊在輝, 李柄喆, 禹夏教, 徐萬坤, 禹善基, 金岡玟

16) 1901년 7월 9일 내부대신이 대구군수에게 보낸 훈령(한국국학진흥원 소장)

17) 盃山: 지금은 ‘城山’이지만 ‘盃山’(잔피)으로도 불리어졌다.

18) 1901년 7월 21일 관찰사가 대구군수에게 보낸 훈령(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이기도 했으며 문집 간행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1> 낙동정사 항공사진(네이버)



<그림 2> 낙동정사 정면(2021년 4월)

2. 건립비 조성과 운영

강학소 건립을 허가받은 즉시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작되었다. 건립의 비용은 대부분 문중이나 개인에 의해 조성되었다. 낙동정사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된 장부는 여러 종이 전해지지만 여기에서는 문중별, 개인별 비용 조성 내역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임연당창건소조력기』¹⁹⁾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1901년 8월에 작성한 것으로 문중(1,538냥)과 개인(1,333냥)이 낸 2,871냥, 관향계 계원 41명²⁰⁾이 낸

19) 『臨淵堂創建所助力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임연당'은 낙동정사를 건립하기 전 이름이었고, 건립 후에는 강당 이름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1년 6월에 지은 낙동정사 기문에는 “1901년 낙동강 상화대(賞花臺)에 정사를 지어 정사의 이름은 ‘낙동정사’, 서쪽 방은 ‘임연당(臨淵堂)’, 동쪽 방은 ‘방화정(房花亭)’이라 이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상화대는 신라경덕왕이 가야산으로 세자의 문명을 오가면서 이곳의 경치에 반해 행궁을 지어 경치와 꽃을 감상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20) 瓣香稷: 임재의 제자들로 구성된 계(건립 비용 조성 내역: 金岡玟 10냥, 金圭夏 10냥, 金福洙 15냥, 金容淳 10냥, 金裕善 10냥, 金洪淳 200냥, 金洪禹 50냥, 羅在淵 30냥, 杜憲賢 30냥, 朴光根 10냥, 朴純鎬 10냥, 裴季秀 10냥, 裴麟錫 50냥, 白玉燦 50냥, 徐光坤 20냥, 徐碩基 5냥, 石載俊 50냥, 石璣瓊 350냥, 成夏慶 50냥, 孫匡鉉 50냥, 宋箕命 30냥, 申達均 10냥, 申普均 20냥, 申鉉達 10냥, 申鉉斗 20냥, 沈廷燮 30냥, 梁慶龍 10냥, 李柄漢 15냥, 李韶儀 20냥, 李鍾和 50냥, 張永錫 20냥, 田楊秀 20냥, 鄭明錫 20냥, 趙甲來 30냥, 曹瑍 100냥, 趙性吉 100냥, 趙應奎 50냥, 崔俊淑 10냥,

1,705냥 등 4,576냥의 비용 조성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문중별로 살펴보면, 단음²¹⁾(8냥), 산격(100냥), 성주 다산(30냥), 옥반²²⁾(15냥)에 거주했던 달성서씨 문중에서 173냥, 세천²³⁾에 거주했던 능주구씨 문중(100냥), 동변과 서변의 능주구씨 문중(각 40냥)에서 건립을 도왔다. 기타 문양²⁴⁾의 동래정씨 문중(200냥), 청도 대산의 전주이씨 문중(110냥), 무태의 인천이씨 문중(70냥), 박곡²⁵⁾과 행정²⁶⁾의 담양전씨 문중(30냥) 등에서 조력하였다. 문중별 건립비용 조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문중별 건립비 조성 내역

문중	거주지역	금액	문중	거주지역	금액
경주김씨	星州 伐知	75냥	담양전씨	朴谷	10냥
경주최씨	江東	20냥	동래정씨	汶陽	200냥
김해김씨	鹿洞	50냥	성주이씨	西部谷	20냥
김해허씨	壯洞	40냥	순천박씨	妙洞	40냥
	仙源	20냥	영천이씨	枝底	20냥
남평문씨	掛津	10냥	이씨문중	葛山	50냥
능주구씨	西邊	40냥	이씨문중	長洞	20냥
	世川	100냥	인천이씨	無怠	70냥
	東邊	40냥	인천채씨	壯洞	5냥
	世川宗中	大木 4개	전주이씨	淸道 臺山	110냥
담양우씨	月村	50냥	중화양씨	池山	50냥
달성서씨	丹陰	8냥	진주강씨	臺山	50냥
	玉盆	15냥	청주한씨	江亭	5냥
	星州 茶山	30냥	파평윤씨	汶山	90냥
	山格	100냥	평산신씨	慶州	30냥
	逸村	20냥		玉浦	30냥
담양전씨	杏亭	20냥	평택임씨	金洞	100냥

表宅敬 20냥, 表鍾玟 50냥, 洪榮杓 50냥)

- 21) 丹陰: 현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단산리
- 22) 玉盆: 현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 23) 世川: 현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세천동
- 24) 汶陽: 현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 25) 朴谷: 현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 26) 杏亭: 현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개인별 건립 비용 조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 임재 서찬규의 제자이자 학계나 유계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계원들이다. 주요 거주지와 인물을 살펴보면, 광리²⁷⁾에 거주했던 단양우씨(禹圭洪, 禹圭煥, 禹濟壽, 禹孝碩, 禹孝高), 경산 시동²⁸⁾에 거주했던 경주이씨(李鍾澤, 李致殷, 李致勳), 옥산전씨(全廣洙, 全台鉉), 창원황씨(黃甲性), 대구 침산에 거주했던 안동권씨(權應萬, 權鎭洛), 김해김씨(金斗年), 밀양박씨(朴性夏, 朴憲夏), 조암²⁹⁾에 거주했던 김녕김씨(金永植, 李教寬, 李尙淳, 李章淳), 노곡³⁰⁾에 거주했던 김녕김씨 2인, 함천이씨(李東瑔, 李鳳煥), 대구 장기³¹⁾에 거주했던 孔錫贊, 경산 곡계³²⁾에 거주했던 서산류씨(柳載坤), 이천서씨(徐翰基), 교항³³⁾에 거주했던 宋鎭宇·金錫柱·金錫淵, 옥곡³⁴⁾에 거주했던 鄭璣淵·鄭華述 등이다. 기타 현재의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등에 속해 있는 曹也, 巴山, 汶陽에 거주했던 인물들이 비용을 조성하였다.

<표 2> 개인별 건립비 조성 내역(금액단위: 냥)

성명	거주	금액	성명	거주	금액	성명	거주	금액
孔錫贊	長基	2	李教寬	租岩	20	孫益奎	蔡亭	3
權應萬	砧山	10	李東瑔	魯谷	30	宋鎭宇	橋項	30
權鎭洛	砧山	30	李秉儀	掛津	2	禹圭洪	廣里	20
金 2人	魯谷	50	李鳳煥	魯谷	20	禹圭煥	廣里	10
金宅魯	金洞	20	李尙淳	租岩	30	禹濟壽	廣里	30
金斗年	砧山	20	李章淳	租岩	30	禹孝碩	廣里	5
金得坤	漆谷	20	李鍾澤	慶山 詩洞	10	禹孝高	廣里	5

27) 廣里: 현 대구시 동구 평광동
 28) 詩洞: 현 대구시 동구 대림동
 29) 租岩: 현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30) 魯谷: 현 대구시 북구 노원동
 31) 長基: 현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32) 曲溪: 현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33) 橋項: 현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34) 玉谷: 현 경상시 옥곡동

성명	거주	금액	성명	거주	금액	성명	거주	금액
金文燮	慶山 俠谷	5	李致鳳	玉浦	10	全廣洙	慶山 詩洞	20
金相鳳	曹也	40	李致殷	慶山 詩洞	10	全東勳	金洞	20
金錫淵	橋項	10	李致勳	慶山 詩洞	5	全台鉉	慶山 詩洞	20
金錫柱	橋項	10	林永相	奇世	10	鄭璣淵	慶山 玉谷	10
金永植	租岩	50	朴性夏	砧山	50	鄭華述	慶山 玉谷	3
金永浩	巴山	100	朴憲夏	砧山	10	趙曦濟	辰泉	20
金旭秀	新基	浦田 20두락	徐東洙	辰泉	20	崔相契	辰泉	20
						崔洗述	玉盆	5
金應坤	梅谷	30	徐鳳圭	租岩	10	秋文求	利川	50
金鍾基	汶陽	3	徐鳳洙	玉盆	5	秋致求	利川	50
金泰洙	江林	30	徐相厚	莘田	100	夏東圭	晚村	10
呂相熏 呂柄斗	新田	10	徐錫璉	玉盆	10	許鈴	葛山	15
柳載坤	慶山 曲溪	5	徐善均	山格	10	許楨	井海	20
劉漢鳳	玄風 龍洞	100	徐翰基	慶山 曲溪	10	黃甲性	慶山 詩洞	20

3년 동안 조성된 비용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³⁵⁾ 1902년 4월 8일까지 4,326냥이 모금되어 그 중 3,517냥 5전 7푼을 지출하였고, 잔금은 808냥 4전 3푼이었다. 3,517냥에 대한 상세한 지출 내역은 불확실하지만 토지 정비와 강학소의 초기 건축 비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2년 4월 8일부터 1903년 4월 7일까지는 808냥 4전 3푼을 지출하였다. 주요 지출 내역은 토지 정비에 190냥 7전 9푼, 星山員 발 25두락의 매입비에 250냥을 지출하였고, 253냥 6전 8푼이 추가로 들어와 621냥 3전 2푼을 보유하였다. 또, 器皿(그릇) 40냥, 鼎(솥) 32냥 5전, 식비 15냥 4전 9푼, 부의금 5냥 등 95냥 9전 8푼을 지출하여 실재

35) 『臨淵堂量計錄』(한국국학진흥원 소장, 1902~1904년까지 기록)

525냥 3전 4푼을 보유하였다. 금전 관리(放債)는 尹鶴一(문산 거주) 100냥, 李柄達(태촌 거주) 50냥, 具仁書(무태 거주) 20냥, 全斗漢(행정 거주) 36냥, 禹成東(일촌 거주) 140냥, 表鍾玟(배산 거주) 100냥, 徐永觀 79냥 3전 4푼 등 7명이 나누어 맡았다.³⁶⁾

1903년 4월 8일부터 1904년 4월 7일까지 회계 내역은 전년에서 이어난 원금(525냥 3전 4푼)에 이자(210냥 1전 2푼)가 더해져 735냥 4전 6푼을 보유하였다. 또 신당(70냥), 원대(10냥), 성주 장동(20냥) 등에서 추가로 들어와 총 835냥 4전 6푼을 보유하였다. 그 중 盖屋(지붕 덮음), 築墻(담장 쌓음), 植松 등에 562냥을 지출하여 남은 273냥 2전 9푼의 관리는 유사 徐永觀(78냥 7전 6푼), 禹夏昌(89냥 1전 4푼), 徐錫璉(14냥), 梁慶龍(91냥 3전 9푼)이 각각 맡았다.³⁷⁾

1904년 4월 8일부터 1905년 4월 7일까지 회계 내역은 원금 273냥 2전 9푼과 이자 109냥 3전을 더한 382냥 6전을 盖草(지붕 엮음), 歲儀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특히 1905년 1월 22일 임재가 별세하자 묘역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130냥을 지출하였다. 이 비용을 포함해 1년 동안 248냥 1전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134냥 4전은 유사 徐永觀(110냥 2전)과 徐錫璉(24냥 2전)이 관리하였다.³⁸⁾

임재의 사후에도 낙동정사에서 강학과 학계는 이어졌다. 강학계의 비용 관리를 기록한 『임연당강학계』³⁹⁾에는 임재가 별세하고 10여년 후인

36) 都合 入錢 4326냥, 下 3517냥 5전 7푼, 在 808냥 4전 3푼
 190냥 7전 9푼(토지정비 사용), 250냥(성산원 騰字 받 25두락 매입), 實在 367냥 6전 4푼(新入錢 253냥 6전 8푼), 총 621냥 3전 2푼, 지출 40냥(器血), 32냥 5전(鼎), 15냥 4전 9푼(식비), 5냥(茶山 부의금), 2냥 3전 2푼(前下記), 6전 7푼(下記), 下(지출) 합 95냥 9전 8푼, 실재 525냥 3전 4푼
 放債(금전 관리): 尹鶴一(文山) 100냥, 李柄達(台村) 50냥, 具仁書(無怠) 20냥, 全斗漢(杏亭) 36냥, 禹成東(일촌) 140냥, 表鍾玟(盃山) 100냥, 徐永觀 79냥 3전 4푼
 37) 元金 525냥 3전 4푼, 出錢 210냥 1전 2푼, 合 735냥 4전 6푼, 新入錢 70냥(新墻), 10냥(원대), 20냥(성주 長洞) 都合 835냥 4전 6푼, 지출 562냥, 實在 273냥, 有司 徐永觀(78냥 7전 6푼), 禹夏昌(89냥 1전 4푼), 徐錫璉(14냥), 梁慶龍(91냥 3전 9푼)
 38) 元金 273냥 2전 9푼, 利錢 109냥 3전, 합 382냥 6전, 出金 248냥 1전, 實在 134냥 4전, 有司 徐永觀 110냥 2전, 徐錫璉 24냥 2전

1916년부터 1924년까지 강학계의 구성과 계금을 낸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임연당유계의연록』⁴⁰⁾에는 1920년부터 1941년까지 유계 명단과 비용 조성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임재의 사후 적어도 1941년까지 학계와 유계가 결성되고 운영이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39) 『臨淵堂講學稷』(한국국학진흥원 소장): 1916년부터 1924년까지 강학계의 계금 내역을 기록함.(1916년 216냥 2전, 1917년 380냥, 1918년 478냥 7전 5푼, 1919년 622냥 3전 6푼, 1920년 774냥, 1921년 174냥 16전, 1922년 67원 80전, 1923년 48원, 1924년 48원)

40) 『臨淵堂儒稷義捐錄』(한국국학진흥원 소장)

41) 1920년 全斗漢(20원) 表鍾玟(40원) 禹成東(10원) 尹承一(2원) 鄭奎錫(80원) 徐貞欽(100원) 權鳳集(10원) 孫亮尙(2원) 具慶會(5원) 金東烈(40원) 許棣(2원) 具洪書(2원) 李京儀(10원) 禹善基(4원) 徐敬洙(18원) 秋桓燁(5원) 具麟會(3원) 徐俊奎(10원) 朴純鏞(3원) 楊在輝(5원) 徐錫昌(2원) 徐錫禹(1원) 徐錫寶(3원) 鄭泳教(2원) 禹成鉉(3원) 禹濟奭(7원) 徐周鎭(2원) 具禎會(5원) 鄭胄錫(10원) 鄭泳範(30원) 金相濬(20원) 金楨休(5원) 許權(3원) 杜炳周(28원) 李東璫(5원) 禹夏教(3원) 禹義東(3원) 禹涇東(3원) 郭守斌(3원) 金教賢(20원) 具淙植(5원) 金在烈(10원) 李柄遠(20원) 金錫泳(1원) 徐翰基(2원) 尹桉(10원) 尹震(10원) 尹極普(2원) 尹性普(6원) 徐碩基(4원) 秋秉熙(4원) 秋秉杓(6원) 金容鏞(3원) 李鍾甲(3원) 申鉉俊(2원) 金永振(6원) 金永旭(7원) 金象鉉(2원) 具璉會(5원) 尹棟(20원) 金斗潤(20원) 金珠鶴(2원) 金洙彰(2원) 尹相泰(100원) 孫致鵬(2원) 申道澈(2원) 金景秀(3원) 金永杓(1원) 金永或(1원) 卞永國(4원) 卞永旭(2원) 卞永度(2원) 李正湖(1원) 禹纘基(1원) 李龍煥(10원) 李起鶴(10원) 朴昶東(1원) 孫廷台(4원) / 1921년 金江玟(2원) 申鉉穆(2원) 羅在淵(2원) 金福洪(2원) 金鍾太(4원) 具興會(4원) 具玟會(4원) 林在雨(2원) 夏東萬(1원) 李亨儀(1원) 具滋榮(5원) 具太書(2원) 徐載翊(2원) 徐爽載(2원) 石載俊(4원) 石元均(4원) / 1922년 徐錫琦(1원) 徐相旻(3원) 徐錫義(4원) 李文好(2원) 徐根浩(1원) 林相郁(1원) / 1923년 崔南煥(2원) 禹重基(2원) 具丁書(3원) 徐達熙(50전) 徐南海(50전) 徐致坤(1원) 許魯學(2원) 具贊書(1원) 朴洙夏(1원) / 1928년 李炳春(1원) 徐哲奎(1원) 徐正潤(1원) 金鉉奎(2원) / 1936년 許鎭(1원) 徐奎奎(1원) / 1938년 全炳元(1원 50전) 徐星旭(1원) 黃鍾根(50전) / 1939년 徐光水(1원) 禹夏胄(2원) 徐秉燦(1원) / 1941년 徐丙夏(1원) 夏成洛(1원) 許湛(10원)

IV. 낙동정사의 학계 구성

1. 문중별·지역별

낙동정사의 계는 임재의 후손과 제자들에 의해 결성된 동문계 성격의 학계이며, 정사가 건립된 1901년 이전부터 결성되어 임재가 별세하기 전인 1904년까지 많은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임재의 별세 이후에도 1940년대까지 강학 활동이 이어졌으며, 학계가 계승되었다.

『임연당유안』⁴²⁾은 낙동정사가 건립되기 전인 1900년부터 1941년까지 600여명 이상의 명단이 수록된 동문계 성격의 계안이다.

각 연도별 계원 수를 살펴보면 경자년(1900. 12. 26)에 계장 朴昇東을 비롯하여 계원 具鎬書, 徐萬奎, 朴重鉉, 禹在東 등 284명, 신축년(1901.3.11.)에 徐載奎, 徐相洛, 李舜儀, 杜僖賢 등 173명, 임인년(1902.3.11)에 沈相完, 朴致善, 白樂恒, 李海春 등 69명, 계묘년(1903.03.11)에 朴勉東, 徐文奎, 杜正雄 등 105명, 갑진년(1904.03.11)에 1명 등 632명이다. 이때까지가 임재의 생전 명단이고, 이후 기미년(1919) 1명,⁴³⁾ 을해년(1935) 14명,⁴⁴⁾ 무인년(1938) 6명,⁴⁵⁾ 신사년(1941)⁴⁶⁾ 7명 등 28명이 추가로 유입되었다. 계안에 수록된 명단을 통

42) 『臨淵堂儒案』(한국국학진흥원 소장)

43) 기미년(1919) 3월 11일 尹相泰(字 聖玟, 본관 파평, 월촌居)

44) 을해년(1935) 4월 5일 金鉉奎(字 文道, 본관 김해居), 徐哲奎(字 子建, 庚辰生, 본관 달성, 불로동居), 徐正潤(청도군 梧鳳居), 徐南海(본관 달성, 청도군 梧鳳居), 徐達熙(본관 달성, 영천군 鳳洞居), 徐致坤(본관 달성, 경산군 甫仁洞居), 崔南煥(본관 경주 경산군 杏東居), 林相郁(본관 평택, 가창면 金洞居), 尹炳弼(본관 칠원, 칠곡 旺方居), 孫廷台(본관 밀양, 萊亭居), 崔廷友(본관 경주 解頤面 江洞居), 徐光水(본관 달성 고령군 菴村居), 許鎭(본관 김해 수성면 掛津居), 徐華奎(월배면 祖巖居)

45) 무인년(1938) 4월 4일 全柄元(字 明五, 己卯生, 본관 옥천, 수성면 만촌居), 徐星旭(字 聖三, 丁亥生, 본관 달성, 화원면 구라居), 黃鍾根(논공면 三狸洞居), 禹夏胄(字 舜敎, 본관 단양, 월배 월촌居), 徐錫壽(字 道元, 庚辰生, 본관 달성, 고령 菴村居), 朴鍾式(字 寬甫, 癸卯生, 본관 밀양, 대구 檀田居)

46) 신사년(1941) 4월 5일 徐丙夏(字 德汝, 甲戌生, 달성인, 대구 南龍居), 全大漢(字

해 임재에게 수학한 제자들의 구성과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⁴⁷⁾

『임연당유계안』에 표기된 것을 위주로 계원의 문중별, 지역별 구성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의 계원으로는 산격 거주의 달성서씨⁴⁸⁾와 월촌 거주의 단양우씨⁴⁹⁾ 무태 거주의 능주구씨⁵⁰⁾와 인천이씨⁵¹⁾ 문산 거주의 파평윤씨⁵²⁾ 문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계를 구성하였다.

그 외 강동(현 동구 봉무동) 거주의 경주최씨(崔廷韓, 崔瓘煥, 崔仁煥, 崔奎煥, 崔義煥), 장동 거주의 인천채씨(蔡鼎基, 蔡河誠), 김해허씨(許標, 許湜, 許沈), 이천(현 남구 이천동) 거주의 추계추씨(秋鎭求, 秋任求, 秋陽求, 秋秉權, 秋秉杓, 秋秉秀), 조야(현 북구 조야동) 거주의 김해김씨(金尙夏, 金相烈, 金相來, 金相熙, 金相鳳), 지산(현 수성구 지산동) 거주의 중화양씨(楊在輝, 楊在淳, 楊在煥, 楊在湖, 楊在殷, 楊在淇, 楊在萬), 묘동(현 달성군 하빈면) 거주의 순천박씨(계장 朴昇東, 朴勉東, 朴魯轍, 朴最東) 등이 포함되었다.

景澤, 庚寅生, 옥천인, 대구 杏亭 居), 全柄鶴(字 極天, 庚辰生, 옥천인, 대구 만촌 居), 全柄會(字 星伯, 甲午生, 옥천인, 대구 만촌 居), 夏成洛(字 聖書, 辛巳生, 달성인, 대구 만촌 居), 許湛(字 允和, 甲申生, 김해인, 대구 望亭 居), 許魯祐(字 君極, 辛卯生, 김해인, 대구 仙源 居)

47) 632명의 계원 명단(임재 제자 명단)은 부록으로 수록함.

48) 徐康洙, 徐罔奎, 徐桂鉉, 徐大奎, 徐德奎, 徐龍奎, 徐萬奎, 徐萬基, 徐冕奎, 徐範奎, 徐炳坤, 徐炳彥, 徐炳祚, 徐柄鎬, 徐鳳基, 徐象奎, 徐錫圭, 徐錫年, 徐錫麟, 徐錫周, 徐錫昌, 徐錫台, 徐錫勳, 徐永年, 徐永昱, 徐五奎, 徐有坤, 徐有鉉, 徐潤基, 徐載奎, 徐貞欽, 徐宗奎, 徐之煥, 徐震坤, 徐鎭甫, 徐鎭祐, 徐七奎, 徐七鉉, 徐鐸坤, 徐炯奎, 徐洪基

49) 禹宅熙, 禹東建, 禹東珪, 禹東畿, 禹東狩, 禹東植, 禹東埴, 禹善基, 禹性基, 禹成東, 禹升基, 禹允基, 禹在東, 禹纘基, 禹泰基, 禹夏甲, 禹夏繼, 禹夏敦, 禹夏圭, 禹夏烈, 禹夏伯, 禹夏承, 禹夏容, 禹夏雄, 禹夏宰, 禹夏績, 禹夏轍, 禹夏洪, 禹夏璜, 禹義東

50) 具慶會, 具光會, 具達書, 具文會, 具玟書, 具秉書, 具鵬書, 具善會, 具晟書, 具然浩, 具禹書, 具允書, 具仁書, 具定書, 具琮書, 具燦書, 具贊書, 具鎬書

51) 李吉熙, 李能祥, 李達祥, 李柄達, 李柄斗, 李柄魯, 李柄遇, 李柄運, 李柄允, 李柄泰, 李柄洪, 李錫達, 李在春, 李定祥, 李宗熙, 李漢春, 李華祥

52) 尹杼, 尹喜普, 尹檣, 尹元普, 尹鮮, 尹鶴一, 尹杻, 尹夏一, 尹驥赫, 尹柁, 尹極普, 尹寧普, 尹鼎普, 尹性普, 尹椿, 尹樹, 尹挺, 尹永赫, 尹椽, 尹桢, 尹宅普, 尹柵, 尹榕, 尹以一, 尹圭普, 尹源普, 尹載赫

대구 이외의 지역으로는 청송 덕천(현 청송군 파천면)에 거주했던 청송심씨(沈宗澤, 沈能沂, 沈宜燾, 沈瑀澤), 선산 西部에 거주했던 성주이씨(李丙燮, 李祐淳, 李相祚, 李宇燮), 청도 新安에 거주했던 밀양박씨(朴哲坤, 朴守坤, 朴榮秀, 朴璉坤, 朴秘坤, 朴致海, 朴致鎬, 朴致善, 朴永坤), 성주 巖浦(현 성주군 월항면)에 거주했던 경산이씨(李時中, 李鐸謨, 李萬暢, 李萬斗, 李斗竣), 友鹿(현 달성군 가창면)에 거주했던 김해김씨(金錫斗, 金錫泳, 金基柱, 金大淳, 金相玉, 金錫義, 金載河), 행정(현 달성군 가창면)에 거주했던 옥천전씨(全錫璧, 全昌漢, 全一漢, 全柄坤, 全騏漢, 全東漢, 全棟做, 全柄執), 경주 제서에 거주했던 영월신씨(辛達承, 辛珏承, 辛學洙, 辛郁善, 辛永承, 辛晦根, 辛碩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인동 각산(인동인 張柄志), 함양 介坪(하동인 鄭民鉉), 경주 금호(경주인 孫蕃蕃), 청도 대곡(밀양인 朴桂晟), 의성 명호(아주인 申廷植, 申相圭), 고령 봉진(성주인 全海達), 상주 은척(진주인 柳海璋, 柳海冕, 柳海範) 등 여러 지역에 거주했던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2. 파리장서 서명자

파리장서는 프랑스 파리에 보내는 긴 편지라는 뜻이다. 1919년 3월 심산 김창숙을 대표로 한 137명의 유림은 독립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파리강화회의⁵³⁾에 민족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이 저지른 명성황후 시해와 우리민족의 주권 강탈 과정을 알리고 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것이다.

심산 김창숙은 파리강화회의의 대표로 지명되어 상해 임시정부에 파견되었으며, 상해에서 파리장서를 영문 번역하여 파리강화회의와 각국 대사와 중국을 비롯하여 국내에도 배포하였다. 파리장서 서명자 명단은 이후 거창에서 발각되어 서명한 많은 유림들이 탄압받았다.

이 운동은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이후 유림들이 독립운

53) 1919년 1~6월에 27국 대표들이 1차 세계대전의 후속 조치를 의논하기 위해 열림.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파리장서에 서명한 유림 137명의 출신지는 경북 62명, 경남 42명, 충남 18명, 전북, 전남 각 4명이다. 경북 지역 출신 서명자 62명의 지역 분포는 성주 15명, 달성 11명, 봉화 9명, 고령 6명, 안동 5명, 김천 4명, 영주 3명, 대구 2명, 경주 2명, 그 외 영양, 의성, 선산, 청도, 영천에서 각 1명이었다.⁵⁴⁾ 이 중 현재의 대구시 달성군을 포함한 대구지역의 파리장서 서명자는 13명이다.⁵⁵⁾ 중요한 것은 대구지역 파리장서 서명자 13명 중 9명이 낙동정사의 학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강학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1) 임재의 손자, 서건수

임재는 1841년 17세에 조석정의 딸과 결혼하여 네 아들을 두었으며, 장남 서진국은 서갑수, 서건수 두 아들을 두었다. 서진국의 장남 서갑수는 생원이었으며, 차남 서건수(1874~1953)는 1919년 3월 대구만세운동에 참여하고 파리장서에 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에 체포되어 1921년까지 구속되었다. 199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서건수는 1915년 1월 21일 임연당 강학계에 5냥을 낸 기록이 있으며, 1916년 4월에 낙동정사에서 『대학』의 서문을 강의하였다.

임재의 후손 중에는 서건수 외에도 대구지역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인물이 있다. 서갑수의 손자이자 임재의 현손인 목민 서상교(1923~2018)는 1942년 대구공립상업학교 재학 시절 항일 단체인 태극단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1943년 앞산 안일사에서 결단식을 앞두고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7년형을 선고받고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 중 광복을 맞이하여 석방되었다. 이러한 공로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후에 광복회 부회장을 지냈다.

54) 김희곤 등, 『경북독립운동사Ⅲ 3.1운동』, 경상북도, 2013, 504쪽.

55) 徐健洙, 禹涇東, 禹成東, 禹昇基, 禹纘基, 禹夏教, 禹夏三, 李鍾紀, 金容鎬, 朴純鎬, 朴在根, 李福來, 曹錫河

2) 월촌 단양우씨 문중

월촌은 현재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일대로 우배선(1569~1621)⁵⁶⁾의 고조인 우전이 화원현 월촌에 정착한 이후부터 600여 년 동안 집성촌을 이루었다. 월촌에 거주했던 단양우씨 문중에서는 6명이 파리장서에 서명하였는데,⁵⁷⁾ 이 중 우성동, 우찬기, 우하교, 우경동, 우승기 등 5명이 임재의 제자로 낙동정사에서 여러 활동을 하였다.

우성동(1861~1920)의 자는 大建으로, 임재 서찬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월촌의 열락당에 강습소를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서상일, 우하교, 윤상태, 박상진 등이 대구 안일암에서 결성한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회에 참여하여 독립 자금을 모았으며, 파리장서운동이 전개될 때에는 격문과 파리장서를 각지에 배포하였다. 199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그는 낙동정사를 건립하기 전부터 여러 유림들과 함께 강학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1900년 『임연당유안』에 계원으로 들어있으며, 1901년 4월 관찰사에게 강학소의 건립을 허가해 달라는 청원소를 올린 16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01년 건립 비용을 조성할 때에는 금전의 일부를 관리하였으며, 이후 1915년 5냥, 1920년 10원을 낸 기록이 있다.

우찬기(1861~1921)의 자는 態有, 호는 誠菴으로, 임재 서찬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파리장서 서명자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뒤에는 장식영, 송준필의 옥중을 방문하였으며, 이후에도 항일독립 활동을 계속하였다.⁵⁸⁾ 199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그는 1900년 『임연당유안』에 계원으로 들어있으며, 1901년 4월 내각대신에게 건립을 허가해 달라는 청원소의 연명자 114명에 포함되어 있다. 1916년 4월에는 『대학』의 首章을 강의하였다.

우하교(1872~1941)의 자는 允欽, 호는 魯菴으로, 임재 서찬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15년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회를 조직하여 활동

56) 禹拜善: 임진왜란 때 사재를 모아 의병을 모집하여 화원, 달성 등에서 큰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의 공으로 1604년에 선무원종일등공신에 책록되었다.

57) 월촌 단양우씨 중 한 명인 우하삼은 낙동정사에서의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58) 대구시달서구사편집위원회, 『달서구사 하』, 2006, 526쪽.

하였다. 1917년 군자금 모집에 연루되어 3개월 구속되었고, 파리장서에 서명하여 6개월 동안 구속되었다. 3.1운동 이후에도 만세운동의 확산과 독립군 자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에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그는 우성동과 함께 낙동정사의 창건 초기부터 관여하였다.

1900년 『임연당유안』의 명단에 들어 있으며, 1901년 4월 강사 건립을 허가받기 위해 내각대신에게 올린 청원서의 연명자 114명 중에 들어 있다. 비슷한 시기 관찰사에게 올린 청원소의 연명자 16명 중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낙동정사에서 1916년과 1937년 강회에 참여하였다. 1916년에는 4월에 『논어』의 首章을 강의하였다. 이로부터 20여년 후 1937년부터 1940년까지 강회에서는 『논어』, 『맹자』를 강의하였다.

우경동(1876~1960)의 자는 景滉으로, 임재 서찬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파리장서에 서명하여 6개월 동안 구속되었으며,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회를 도와 독립 군자금을 모으는데 기여하였다. 199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그는 1901년 4월 내각대신에게 강사 건립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소를 올렸을 때 서명한 114명에 포함되어 있다. 1903년 『임연당유안』에 수록되어 있으며, 1915년에 1냥, 1920년에 3원을 낸 기록이 있다. 1916년에 열린 강회에서 『논어』를 강하였으며, 1938년 4월 5일과 1939년 4월 4일에 『대학』을 강의하였다. 또한 1921년부터 1924년까지 낙동정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우승기(1875~1948)의 자는 德有로 임재 서찬규의 제자이다. 파리장서에 서명하여 6개월 동안 구속되었다. 199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1900년 『임연당유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1915년 『임연당강학계』, 1916년 『임연당유계』에 이름이 들어 있다. 이후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낙동정사에서 『대학』, 『맹자』, 『시전』을 강의하였다.

3) 기타

박순호(1873~1934)의 자는 德文으로, 달성군 다사면 문양에 거주하였다. 1900년 『임연당유안』에 들어 있으며 1901년 임연당을 창건할 때

10냥을 낸 기록이 있다. 1916년 강회에서는 『대학』 誠意章을 강의하였다. 2004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이복래의 자는 疇五이며, 무태에 거주하였다. 1900년 『임연당유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1901년 4월 내각대신에게 올린 강사 건립 청원소의 연명자 114명에 포함되어 있다.

김용호(1853~1924)의 자는 援琚이며, 매곡에 거주하고 있었다. 1900년 『임연당유안』에 들어 있으며, 1917년 1냥, 1920년 3원을 낸 기록이 있다. 2003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표 3〉 파리장서 서명자의 낙동정사에서의 활동

성명 / 자료명		내용
徐健洙	임연당강학계(1915)	5냥
	임연당강록(1916)	講大學序文
	임연당유계금록(1915~1921)	字 仲強, 5냥, 남산 거주(1915년 수록)
禹成東	임연당유안(1900~)	字 大建(1900년 수록)
	임연당강학계(1915)	5냥
	임연당유계금록(1915~1921)	字 大建, 5냥, 월촌 거주(1915년 수록)
禹夏敎	임연당유계의연록(1920~1939)	10원, 월배면 상인동(1920년 수록)
	임연당유안(1900~)	字 允欽, 癸酉生, 월촌 거주(1900년 수록)
	임연당강학계(1915)	2냥
	임연당강록(1916)	講論語首章
	임연당강록(1937~1940)	講孟子三樂章·講論語陋巷章(1937.4.5.) 講論語里仁篇(1938.4.5.) 講論語齊景公問政章(1939.4.4.) 講論語子罕篇(1940.4.4)
	임연당유계금록(1915~1921)	字 允欽 2냥, 월촌 거주(1915년 수록)
禹涇東	임연당유계의연록(1920~1939)	3원, 월배면 상인동(1920년 수록)
	임연당유안(1900~)	字 景湜(1903년 수록)
	임연당강학계(1915)	1냥
	임연당유계금록(1915~1921)	字 景湜, 1냥, 월촌 거주(1915년 수록)
	임연당강록(1916)	講論語
	임연당유계의연록(1920~1939)	3원(1920년 수록)
	임연당강학계(1916~1924)	1921~1923년 동안 계금 관리
임연당강록(1937~1940)	講大學題辭(1938.4.5.) 講大學序文(1939.4.4)	

성명 / 자료명		내용
禹 升 基	임연당유안(1900~)	字 德有, 乙亥生, 월촌 거주(1900년 수록)
	임연당강학계(1915)	字 德有, 丙子生
	임연당유계금록(1915~1921)	字 德有, 월촌 거주(1916년 수록)
	임연당강록(1937~1940)	講大學本末章(1938.4.5.), 講孟子齊宣王代燕章(1939.4.4.), 講詩傳下泉章(1940.4.4)
禹 纘 基	임연당유안(1900~)	字 態有, 辛酉生, 월촌 거주(1900년 수록)
	임연당강학계(1915)	1냥
	임연당강록(1916)	講大學首章
	임연당유계금록(1915~1921)	字 太有, 1냥, 대구 월촌(1916년 수록)
	임연당유계의연록(1920~1939)	1원, 월배면 상인동(1920년 수록)
朴 純 鎬	임연당유안(1900~)	字 德文(1900년 수록)
	임연당창건소조력기(1901)	10냥(瓣香稷中)
	임연당강학계(1915)	1냥
	임연당강록(1916)	講大學誠意章
	임연당유계금록(1915~1921)	字 德文, 1냥, 대구 문양(1916년 수록)
	임연당유계의연록(1920~1939)	3원, 달성군 다사면 문양동(1920년 수록)
李 福 來	임연당유안(1900~)	字 疇五, 丁卯生(1902년 수록)
	임연당강학계(1915)	1냥
	임연당유계금록(1915~1921)	字 疇五, 1냥, 무태 거주(1916년 수록)
金 容 鎬	임연당유안(1900~)	元學 김해(1900년 수록)
	임연당유계금록(1915~1921)	字 援踞 1냥, 梅谷 거주(1917년 수록)
	임연당유계의연록(1920~1939)	3원, 梅谷 거주(1920년 수록)

이상과 같이 임재의 손자인 서건수를 비롯하여 월촌에 거주했던 단양 우씨 등 대구지역 파리장서 서명자 9명이 낙동정사에서 활동하였다. ‘임재 서찬규’의 제자들과 ‘낙동정사’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 대구지역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다.

3. 주요 인물

『임연당유안』에 수록된 인물 중 관직과 생원진사를 표기한 것은 22건이다. 진사로는 백운정 이화상(1842~1915), 공재 이병운(1858~1937), 중재 윤봉주 등이 있다. 또한 감역 이태호, 이면호, 도사 우동진, 김하용

(1861~1933), 장령 윤하일, 주사 박노진, 심우택, 이두준, 박노철, 찰방 박의현, 참봉 신옥균, 한림 김하용 등이 보인다.

〈표 4〉 주요 인물 기록

이력	성명	자 / 생년	본관	거주	수록시기
進士	李秉昊	華汝	경산	성주 保洞	1900
	尹奉周	明肅 / 庚申(1860)	과평		1900
	李華祥	載重 / 壬寅(1842)	인천	무태	1900
	金洪淳	敦夫	김해		1900
	李柄運	德七 / 戊午(1858)	인천	무태	1900
	柳海晁	周卿	진주	상주 銀尺	1900
	鄭民鉉	基洪 / 癸亥(1863)	하동	함양 介坪	1901
	楊春發	靑汝	중화	-	1901
	鄭漢錫	-	동래	-	1901
監役	朴秀寅	重震 / 甲戌(1874)	밀양	흑석	1903
	李泰浩	-	-	-	1901
都事	李冕浩	善養 / 辛亥(1851)	성주	성주 竹溪	1900
	禹東建	中極 / 辛亥(1851)	단양	월촌	1900
掌令	尹夏一	聖華 / 甲寅(1854)	과평	문산	1900
主事	朴魯縝	君密	순천	-	1900
	沈瑀澤	禹玉 / 壬戌(1862)	青松	青松 德川	1901
	李斗竣	健七 / 癸酉(1873)	경산	성주 巖浦	1903
	朴魯轍	道卿 / 癸未(1883)	순천	妙洞	1903
察訪	朴宜鉉	羽成 / 癸卯(1843)	순천	김산	1900
參奉	申郁均	致和	평산	-	1903
翰林	金夏容	忠伯 / 辛酉(1861)	선산	-	1900

이외에도 조선말기 학자인 미강 박승동(1847~1922)은 낙동정사의 학계 계장으로 활동했으며, 의학자인 석곡 이규준⁵⁹⁾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동정사는 지역유학사, 독립운동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낙동정사는 대구지역의 침체된 유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지역유림들이 중심이 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이다. 낙동정사의 건립을 위해

59) 石谷 李圭峻(1855-1923): 포항 영일 출신으로 유학, 한의학, 천문학 등 다방면에 능통하였다. 이제마와 함께 근대 한의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수차례 중앙과 지방에 청원서를 올렸으며 허가한 이후에도 건립 비용 조성을 위해 개인과 문중 등이 동참하였다. 건립 초기 활발한 강학 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1940년대까지 지역 유학을 부흥시켰다.

둘째,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에서 기호학파의 학맥 계승이다. 임재 서찬규는 영남에 살았지만 학문적으로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매산 홍직필로 이어지는 기호학파를 지지하였다. 학계에 포함된 인물 구성을 통해 영남 기호학파를 계승한 인물과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낙동정사는 대구지역 독립운동가와 인연이 깊은 곳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대구지역 파리장서 서명자 13명 중 9명이 낙동정사의 학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임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들은 낙동정사 건립에 앞장섰으며, 파리장서운동으로 구속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강학활동을 하였고 학계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현재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유원지 인근에 있는 낙동정사는 대구 출신의 유학자인 임재 서찬규의 만년 강학소로 삼기 위해 1901년에 후손과 제자들이 힘을 모아 지어진 건물이다. 이곳에서는 임재의 학문을 계승한 많은 인물들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인적 없이 옛 모습이 사라진 채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전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낙동정사의 일부 역사를 살펴보았다.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낙동정사를 건립하기 위한 움직임은 1899년부터 시작되었다. 임재의 제자들과 후손들은 새로운 강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의논하였으며, 1901년에는 내각대신과 관찰사에게 청원서를 보내 강학소의 건립 허가를 수차례 요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즉시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작되었

는데, 건립에 쓰일 비용 약 4,000냥은 달성서씨, 단양우씨 문중 등을 비롯한 여러 문중과 제자, 후손 등 개인에 의해 조성되었다.

낙동정사의 학계는 임재의 후손과 제자들에 의해 결성된 동문계 성격이다. 낙동정사가 건립된 1901년 이전부터 임재의 제자들과 후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임재의 몰년인 1904년까지 많은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1905년 임재의 별세 이후에도 1940년대까지 강학 활동이 이어졌으며 학계와 유계가 계속되었다.

『임연당유안』은 낙동정사가 건립되기 전인 1900년부터 1941년까지 600명 이상의 명단이 수록된 동문 계안으로 이 명단을 통해 임재의 제자 구성과 규모, 영남 기호학파를 계승한 인물과 면모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계안에는 파리장서의 대구지역 서명자 즉, 임재의 손자인 서건수를 비롯하여 우경동, 우성동, 우승기, 우찬기, 우하교 등 단양우씨 5명과 김용호, 박순호, 이복래 등 9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임재에게 수학하였으며, 낙동정사의 건립 및 운영 비용 조성, 강학 등 여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 서찬규의 제자, 낙동정사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 대구지역 파리장서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낙동정사는 지역의 유학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이 논문은 2021년 4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臨齋文集』

『臨淵堂講錄』

『臨淵堂講學稷』

『臨淵堂量計錄』

『臨淵堂儒稷金錄』

『臨淵堂儒稷義捐錄』

『臨淵堂儒案』

『臨淵堂創建所助力記』

『就正日錄』

한국국학진흥원, 『국역임재일기』, 2011.

한국국학진흥원, 『달성서씨 낙동정사』, 2019.

김희곤 등, 『경북독립운동사Ⅲ 3.1운동』, 경상북도, 2013.

대구시달서구사 편집위원회, 『달서구사 하』, 달성군, 2006.

송만오, 「성공을 위한 서찬규의 집념과 노력-조선 후기 어느 한 향촌 양반의 과거 도전기」, 『한국학』 제35권 4호, 2012, 115-144쪽.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www.ugyo.net>)

Abstract

Construction of Nakdong-jeongsa,
a lecture space for ImJae Seo Chan-gyu, and the
composition of Learning association

Woo, Jin-woong

ImJae(臨齋) Seo Chan-gyu(徐贊奎, 1825~1905), a scholar from Daegu(大邱), was an academic figure. In addition, he received much respect for his exemplary personality and behavior.

Nakdong-jeongsa(洛東精舍) was built in 1901 by his disciples and descendants. It was his lecture space for later life. After Imjae(臨齋)'s death, it was also a place for local intellectuals to study and discuss, as well as a gathering place for academic friendship and solidarity. It is located near Hwawon(花園) Park in Dalseong-gun, Daegu.

Nakdong-jeongsa(洛東精舍) was frequented visited by scholars decades ago, but now its old appearance is disappearing and its history is being forgotten.

However, about 5,000 records from Nakdong-jeongsa(洛東精舍) remain to shed light on its history and meaning.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Nakdong-jeongsa(洛東精舍) and the creation of funds, focusing on the data passed down to the present day. In addition, a list of Seo Chan-gyu(徐贊奎)'s disciples at Nakdong-jeongsa(洛東精舍) examined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family and region.

In particular, the list draws attention as it includes nine signers from the Daegu(大邱) area of the Paris-Jangseot(巴里長書), which is Confucians's independence petition.

Therefore, we also looked at the inside stories of their activities at Nakdong-jeongsa(洛東精舍).

keywords :

Im Jae Seo Chan-gyu, Nakdong-jeongsa, Paris-Jangseo,
Paris-Jangseo Movement, Daegu, Im Jae School(臨齋學派)

<부록>임재 제자 명단(1900~1904년 『임연당유안』 수록 632명, 가나다순)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姜尙求		진주		禹涇東	景湜/丁丑	단양	月村
姜源履	德洪/甲子	진양		禹奎洪	善若	단양	
姜在鎭	顯卿	진주		禹圭煥	舜兼	단양	
孔錫贊	養五	곡부		禹宅熙	安中/丙戌	단양	月村
具康書	寧五	능주		禹東建	中極/辛亥	단양	月村
具慶會		능주	無怠	禹東珪	允執/丁未	단양	月村
具光會	舜可	능주	無怠	禹東畿	希聖/丁卯	단양	月村
具達書	士洪/庚戌	능주	無怠	禹東狩	載巡/庚辰	단양	月村
具達會	士學/癸未	능주	月村	禹東植	中執/辛酉	단양	月村
具文書		능주		禹東墳	巨若/辛酉	단양	月村
具文會	德中	능주		禹善基	周命/己卯	단양	月村
具文會	希汝/己卯	능주	無怠	禹性基	孟善/庚午	단양	月村
具玟書		능주	無怠	禹成東	大建/辛酉	단양	月村
具鵬書	子南/己卯	능주	無怠	禹升基	德有/乙亥	단양	月村
具善會	養汝/己卯	능주	無怠	禹英東	元善/丁卯	단양	月村
具善會	周八	능주		禹允基	/癸未	단양	月村
具晟書	聖旭/壬申	능주	無怠	禹在東	文兼/壬寅	단양	月村
具然浩	養五/庚戌	능주	無怠	禹濟壽		단양	
具禹書	錫玄/己卯	능주	無怠	禹纘基	態有/辛酉	단양	月村
具允書	允中	능주	無怠	禹泰基	/庚辰	단양	月村
具仁書	子安/壬戌	능주	無怠	禹夏甲	景圻/壬午	단양	月村
具章書	仁玉	능주		禹夏繼	極立/戊辰	단양	月村
具在書	學三/庚申	능주	無怠	禹夏敎	允欽/癸酉	단양	月村
具鼎書	在三/己卯	능주	無怠	禹夏圭	汝建/甲寅	단양	月村
具正書	仲玉	능주		禹夏烈	善武/癸酉	단양	月村
具貞會		능주		禹夏伯	舜明/丙子	단양	月村
具琮書	文汝/甲子	능주	無怠	禹夏承	敬肖/戊辰	단양	月村
具俊書	良玉	능주	不老	禹夏容	景南	단양	月村
具燦書	明五/丙子	능주	無怠	禹夏雄	言汝/丙戌	단양	月村
具贊書	子襄/戊辰	능주	無怠	禹夏宰	國弼/癸未	단양	月村
具鎬書	繼武/庚子	능주	無怠	禹夏績	汝九/甲寅	단양	月村
權鳳集	德和	안동		禹夏轍	汝七/甲寅	단양	月村
權應萬	允中	안동		禹夏洪	箕汝/丙子	단양	月村
權正勳		안동		禹夏璜	景受/乙酉	단양	月村
權重禧		안동		禹孝碩		단양	廣里
權應洛		안동		禹孝高	敎彦	단양	廣里
琴鏞	子厚	봉화	大邱	禹義東	殷仲/丙戌	단양	月村
金岡玟	叟亨	김해		劉漢鳳			
金敬集		김해		柳榮坤	亨基/戊辰	서산	慶山
金敎鏞	聖燦	경주		柳海冕	周卿	진주	銀尺(尙州)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金敎賢	道一	경주		柳海範		진주	銀尺(尙州)
金圭夏	尙勳	영동		柳海璋		진주	銀尺(尙州)
金圭夏	相熏	영동		尹鮮	馨老/辛巳	과평	汶山
金基柱	禹洪/辛未	김해	友鹿	尹亮植	玉汝/丙寅	과평	星州
金大淳	成汝/癸未	김해	友鹿	尹圭普	德弼/丁卯	과평	汶山
金宅魯		김해		尹極普	翼重/壬午	과평	汶山
金德鉉	敬五/辛巳	안동	晚村	尹杞	晦壽	과평	
金斗年		김해		尹驥赫		과평	汶山
金斗淵				尹寧普		과평	汶山
金斗熙	公允	경주		尹宅普	處仁	과평	汶山
金得坤			漆谷	尹文普	文汝/己卯	과평	老洞
金文燮	會輔/壬申	청도	慶州	尹柄		과평	
金福洪	致五	김해	江林(大邱)	尹柄權	道中/壬午	과평	
金富鉉	善仲	김해		尹奉周	明肅/庚申	과평	枝底
金相來	在彦	김해	助也	尹性普		과평	汶山
金相烈	聖武	김해	助也	尹世均	道仲	과평	
金相鳳		김해		尹樹	士汝/戊寅	과평	汶山
金相鳳	順彦	김해	助也	尹櫟		과평	汶山
金相玉	明五/壬申	김해	友鹿	尹桉	士安/戊寅	과평	汶山
金相翼	周卿/丙子	김해	鹿洞	尹柵	臨夫/庚辰	과평	汶山
金相夏	亨彦	김해	助也	尹淵普	君博/庚申	과평	汶山
金相熙	好若	김해	助也	尹永赫	命汝/乙酉	과평	汶山
金書淵	義範	김녕		尹吾一	玄如	과평	
金錫斗	大鳴/己卯	김해	友鹿	尹榕	文如	과평	汶山
金錫文	俊明	김해		尹杭	仁伯/辛酉	과평	汶山
金錫淵		김해	橋項	尹元普	春吾/丙戌	과평	汶山
金錫泳	致範/庚戌	김해	友鹿	尹源普	致英/壬戌	과평	汶山
金錫柱		김해	橋項	尹殷植		과평	
金錫義	元老/辛未	김해	友鹿	尹以一	道惟	과평	
金永善	聖輔	김해		尹以一		과평	汶山
金永植	潤五			尹華植	舜中/戊辰	과평	延鳳(星州)
金永振	賢瑞/乙亥	광산	若木(仁同)	尹樞	英老/丙辰	과평	汶山
金永浩				尹載赫		과평	汶山
金容瀚	德順	김해		尹挺		과평	汶山
金容鎬	元學	김해		尹貞普	景實	과평	
金旭秀		김해		尹鼎普	順九/辛酉	과평	汶山
金裕善	現淑	광산		尹楮		과평	汶山
金應坤		김해		尹震植	東吉/庚辰	과평	
金在杓	振遠	김해	伏賢	尹樞	晦應	과평	
金楨烈		김녕	魯谷	尹泰烈	文伯	과평	延鳳(星州)
金楨晚		김녕	魯谷	尹泰植		과평	

임재 서찬규의 강학 공간 낙동정사의 건립과 학계 구성(우진웅)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金廷奭		김해		尹泰行		과평	
金正河	聖明/己卯	김해		尹柁	仁道/甲申	과평	汶山
金植休	天卿	김녕		尹宗	晦春/壬申	과평	老洞
金鍾基		김해	長谷	尹夏一	聖華/甲寅	과평	汶山
金鍾佑	順彦	김해		尹學善		과평	甘三
金軫永	極七/丙寅	영동	逸村	尹鶴一	致成/丁未	과평	汶山
金泰洙	慶吾	광산		尹亨普	景可/戊午	과평	枝底
金夏容	忠伯/辛酉	화의	善山	尹鴻一	順行/乙丑	과평	汶山
金衡權		황간		尹梔	友欽/辛未	과평	老洞
金洪淳	敦夫	김해		尹栲	致益/戊申	과평	汶山
金洪禹		김해		尹倬	致登/辛亥	과평	若木(仁同)
羅在淵	龍見	수성		尹喜普	公和/癸未	과평	汶山
羅鎮九	聖猷	수성	粉巖	李桂春		벽진	
都錫正	元萬	성주	軍威	李教寬			
杜相賢	道一	두릉	大邱	李教鐸	善明		
杜僖賢	道源	두릉	星州	李喬熙	良憲/丁卯	성주	星州
文秉杓		합천		李奎祥	乃烈/戊辰	인천	友鹿
文泰洙		합천		李圭峻	叔賢	경주	迎日
文翰九	舜五	남평	掛津(大邱)	李根培		성주	
朴	聖能/丁卯	함양	巴田(義興)	李基源	成七	영진	
朴桂晟	明重/丙子	밀양	淸道	李箕浩	孟善/辛亥	성주	星州
朴光根		밀양		李吉熙	/庚辰	인천	無怠
朴來喆		밀양	星州	李能祥	聖伯/壬子	인천	無怠
朴魯縝	君密	순천		李達祥	孟三/庚戌	인천	無怠
朴魯轍	道卿/癸未	순천	妙洞	李德宇	權中/丁卯	진주	
朴勉東	振汝/辛酉	순천	妙洞	李東璿	圭伯	합천	
朴性夏		밀양		李斗堧	健七/癸酉	경산	巖浦(星州)
朴性夏	河瑞	밀양	砧山(大邱)	李萬珂	明遠	경산	星州
朴守坤	曾約/癸酉	밀양	新安(淸道)	李萬斗	子運/己卯	고산	巖浦(星州)
朴秀寅	重震/甲戌	밀양	黑石	李萬楨	敬受	경산	星州
朴秀憲	聖述/辛酉	밀양	黑石	李萬暢	學老/丙午	경산	巖浦(星州)
朴秀瓏	德七/戊午	밀양	黑石	李冕浩	善養/辛亥	성주	竹溪(星州)
朴純鎬	德文	밀양		李玟祥	乃憲/乙酉	인천	友鹿
朴昇東 (契長)	義初/丁未	순천	妙洞(大邱)	李柄珏	雙玉	인천	
朴永坤	治洪/戊申	밀양	新安(淸道)	李柄達	德漸/丁卯	인천	無怠
朴永祺	鎮五/乙丑	고령	直洞(高靈)	李柄達	德三/辛酉	인천	無怠
朴榮秀	道允	밀양	新安(淸道)	李柄斗	汝拱/辛酉	인천	無怠
朴儀永	孝振/甲寅	밀양	石洞	李柄斗	應五	영진	
朴宜鉉	羽成/癸卯	순천	金山	李柄魯	/丙戌	인천	無怠
朴載華	允中/甲子	함양	巴田(義興)	李丙燮		성주	西部谷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朴鼎東	性禹/壬申	순친	妙洞	李秉鈺	明玉	영양	河陽
朴正陽	用仲	강릉	星州	李柄遇	德正	인친	無怠
朴重鉉	應五/辛丑	순친	漆谷	李柄運	德七/戊午	인친	無怠
朴璉坤	乃成/辛未	밀양	新安(淸道)	李柄元	亨五/甲戌	영친	丙洞
朴昶東	子康/壬申	순친	聖堂	李柄允	中執	인친	無怠
朴哲坤	聲振/庚申	밀양	新安(淸道)	李秉儀		전주	掛津
朴最東	樂汝/辛亥	순친	妙洞(大邱)	李柄迪	德五	인친	
朴致善	舜可/丁巳	밀양	新安(淸道)	李炳喆	義彦/甲戌	인친	無怠
朴致海	舜佐/丙寅	밀양	新安(淸道)	李炳春	益三/甲子	인친	月村
朴致鎬	舜奎/庚申	밀양	新安(淸道)	李柄泰	汝瞻/戊辰	인친	無怠
朴泰和	聖登	밀양	慶山	李柄漢	潤華	성산	
朴秘坤	乃順	밀양	新安(淸道)	李柄漢	潤華	성주	
朴海永	鵬學/甲寅	밀양	黑石	李秉昊	華汝	경산	保洞(星州)
朴憲夏	尙彦	밀양	砬山(大邱)	李柄洪	士範/甲寅	인친	無怠
朴憲夏		밀양		李福來	疇五/丁卯	인친	無怠
裴麟錫		성산		李馥容	士行	성주	
裴陽煥	重坤	성산		李復熙	性初/戊辰	성주	大浦(星州)
裴永奎	孔郁/庚寅	달성		李鳳錫	漢翼	농서	
裴羽錫		성산		李鳳錫	漢翼		
裴瀚		성주		李鳳煥	文玉	합천	
裴濼				李相斗	致奎/庚申	영친	枝底
白起洙	敬魯/甲津	수원	若木(仁同)	李尙淳			
白南俊		수원		李相禹		경주	
白樂完		수원	若木(仁同)	李相祚		성주	西部谷
白樂春	完玉/己酉	수원	若木(仁同)	李錫達	/丁卯	인친	無怠
白樂恒	道亨/丙辰	수원	若木(仁同)	李碩容	士則	성주	
白玉祚	應福	수원		李聖坤	道先	영친	
白玉燦	應述	수원		李韶儀	致鳳	전주	
徐康洙	箕三/己巳	달성	山格	李秀儀	允善/庚辰	전주	
徐罔奎	大五/丙辰	달성	山格	李舜儀	鳳瑞/甲寅	전주	臺山
徐桂鉉	景華	달성	山格	李時中	國中/辛未	경산	巖浦(星州)
徐光坤	玉汝/甲戌	이친		李容宇	乃成/壬戌	전주	
徐基琳	舜弼/癸丑	달성	藿塘	李容煥		성주	慶山
徐大奎	龍見/壬戌	달성	山格	李宇燮		성주	西部谷
徐大洙	聖淳/戊寅	달성	大逸	李祐淳		성주	西部谷
徐德奎	聲彦/壬午	달성	山格	李元錫		농서	
徐東洙	萬必	달성	辰泉(大邱)	李寅九	克燁/壬子	성주	散川(聞慶)
徐萬坤	載年/己卯	달성		李仁錫	聖弼	농서	
徐萬奎	台應/庚子	달성	山格	李寅浩	義仲/辛亥	성주	星州
徐萬基	允夫	달성		李章淳			
徐萬基	樂允/戊寅	달성	山格	李載淵	善五	성산	

임재 서찬규의 강학 공간 낙동정사의 건립과 학계 구성(우진웅)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徐萬洙	養善/丙寅	달성	杏亭	李載淵	善五	성산	
徐晁奎	聖夫	달성	山格	李載瑛	敬章		
徐明俊		달성		李在春	元伯/甲寅	인천	無怠
徐範奎	乃九/壬午	달성	山格	李定祥	舜一/甲寅	인천	無怠
徐炳坤	文旭/戒海	달성	山格	李楨浩	聖允/戊午	성주	星州
徐炳魯	善一/乙丑	달성	山格	李鍾穆	明彦	월성	大邱
徐炳彦	穉元/甲寅	달성	山格	李鍾允			
徐炳庸	敬中/己未	달성	杏亭	李鍾哲	子明	월성	
徐炳祚	錫汝/丙辰	달성	山格	李鍾喆	明甫	경주	
徐秉燦	孟表/戊辰	달성	逸村	李鍾澤	子聖	경주	
徐柄鎬	德仲/己酉	달성	山格	李鍾和	應律	성산	
徐炳祐	周彦/甲寅	달성	山格	李宗熙	海卿/己卯	인천	無怠
徐炳和	景元/癸未	달성	斗山	李震和	雷敬/壬子	벽진	泉倉(星州)
徐鳳奎	瑞見/丁丑	달성	租巖	李哲熙	明吾/己未	성산	大浦(星州)
徐鳳奎		달성		李致鳳		합천	
徐鳳基	聖七/庚辰	달성	山格	李致殷		경주	
徐鳳漢		달성	玉盆	李致勳		경주	
徐象奎	君伯/己巳	달성	山格	李鏜謨	聲遠/丁巳	경산	巖浦(星州)
徐相洛	處中/甲寅	달성	丹陰	李泰浩			
徐祥烈	善一	달성		李台熙	道翁/己未	성산	星州
徐相厚		달성		李夏祥	士明/乙巳	인천	崑南
徐錫龜	敬範/丙午	달성	逸村	李漢春	華仲/己巳	인천	無怠
徐錫圭	禹玄/壬午	달성	山格	李海周	聖重	농서	無怠
徐錫基	宅汝	달성		李海春	禹漸/乙丑	인천	
徐錫年	聖老/己卯	달성	山格	李昊淵	浩定/辛酉	영천	立石
徐錫龍	雲瑞/癸卯	달성	月村	李華祥	載重/壬寅	인천	無怠
徐錫倫	箕彦/戊寅	달성	玉盆	李和珣	聖可	영천	
徐錫麟	子範/癸酉	달성	山格	李禧斗	致瑞	영천	
徐錫鳳		달성		林淳慶	尙道/壬辰	평택	
徐錫榮	華旭	달성	山格	林淳謨		평택	豊角(淸道)
徐錫周	乃文/丁亥	달성	山格	林永相	進五	평택	奇世(大邱)
徐錫珠	明甫	달성	星州	林胤鉉		평택	
徐錫疇	禹洪	달성		林載鉉	致華/壬戌	평택	金谷
徐錫昌	樂三/丁亥	달성	山格	張柄志	舜矩/甲寅	인동	角山(仁同)
徐錫台	權七/庚辰	달성	山格	張永錫	鶴瑞	인동	
徐錫賢		달성	丹陰	全寬鉉	和伯/丙午	옥산	朴谷
徐錫勳	堯伯	달성		全廣洙		옥산	
徐錫勳		달성	山格	全駢漢	德元/丁丑	옥천	杏亭
徐錫熙		달성		全東轍	致中	옥천	
徐錫義	舜甫/壬午	달성	晚村	全東漢	聖澤/辛酉	옥천	杏亭
徐聖俊		달성		全斗漢	仁宅/壬申	옥천	杏亭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徐永年	亨遠/己巳	달성	山格	全柄坤	得中/庚辰	옥천	杏亭
徐永命	性其	달성		全柄德	明仲/戊寅	옥천	
徐永文	在天	달성	星州	全柄汶	景七/壬戌	옥천	晩村
徐英洙		달성	玉盆	全棟倣	景度/丙寅	옥천	杏亭
徐永祐	應五/乙丑	달성	山格	全柄執	允中/己卯	옥천	杏亭
徐永昱	義五/乙亥	달성	山格	全柄漢	權仲/庚午	옥천	典坪
徐永祚	文一/壬午	달성	逸村	全錫璧	伊範/戊辰	옥천	杏亭
徐永灝	元長/甲戌	달성	逸村	田楊秀	璣玉	담양	
徐五奎	晦文	달성	山格	全永根	茂若/己卯	옥산	
徐鎔洙		달성	玉盆	全瑀鉉	時允	옥산	永川
徐有鉉	周伯/辛酉	달성	山格	全膺漢	光淑/戊辰	옥천	晩村
徐潤基	德柔/癸丑	달성	山格	全一漢	聖五/己卯	옥천	杏亭
徐仁奎	亨仲	이천	玄風	全昌漢	國元/甲戌	옥천	杏亭
徐仁守		이천		全台鉉	聖三	옥산	
徐在兼	聖五	달성		全學洙	子悅/丁卯	옥천	晩村
徐載坤	玉汝	이천		全漢慶	德彥/丙辰	옥산	朴谷
徐載奎	聖哉/乙亥	달성	山格	全漢宇	敬淑/癸酉	옥산	南山
徐載奎	文厚/甲寅	달성	丹陰	全海遼	季道/乙卯	성주	鳳津(高靈)
徐在憲	德矩/壬午	달성	逸村	田鉉		담양	永川
徐載鎬	武卿/甲戌	달성	山格	鄭繼憲	乃玉/辛亥	진양	玉山(高靈)
徐在洪	致弘	달성		鄭奎錫		동래	
徐正源		달성		鄭騏燮	鳴國/癸未	초계	大鳴(慶山)
徐正欽	/戊寅	달성	山格	鄭璣淵	衡七/戊寅	초계	玉谷(慶山)
徐濟永	祐賢/壬子	달성	逸村	鄭明錫	仲華	동래	
徐宗奎	海卿/庚午	달성	山格	鄭明哲		동래	
徐之煥	周若/己卯	달성	山格	鄭文範	周一	동래	
徐震坤	寬之/癸亥	달성	山格	鄭民鉉	基洪/癸亥	하동	介坪(咸陽)
徐鎭斗	敬七/壬戌	달성	丹陰	鄭相龜	洛瑞/壬午	초계	玉谷(慶山)
徐鎭明	寬五/癸亥	달성	丹陰	鄭相鳳		초계	慶山
徐鎭默	君玉/乙卯	달성	大谷(淸道)	鄭壽弼		동래	
徐鎭甫	周輔/癸卯	달성	山格	鄭彥錫		동래	
徐鎭鳳	慶來	달성		鄭殷錫	德洪	동래	
徐鎭祐	道化/壬申	달성	山格	鄭在萬	貞元/秉彝	진양	玉山(高靈)
徐七奎	斗應/辛亥	달성	山格	鄭胄錫	兩吉	동래	
徐七鉉	斗建	달성	山格	鄭台燮		초계	
徐鐸坤	明若/己巳	달성	山格	鄭夏時		초계	慶山
徐學洙	伯汝/辛巳	달성	南山	鄭漢錫		동래	
徐翰基	伯瞻/丁巳	달성	慶山	鄭弘潤		동래	
徐炯奎	致三/辛酉	달성	山格	鄭華述	舜協/甲寅	초계	玉谷(慶山)
徐洪基	德三/甲寅	달성	山格	趙甲來	子良	함안	
徐煥洙	相淑	달성	玉盆	趙南奎	極老/癸丑	함안	仁同

임재 서찬규의 강학 공간 낙동정사의 건립과 학계 구성(우진웅)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徐有坤	聖源/辛巳	달성	山格	曹秉夏	景行/丙寅	창녕	慶州
石達源		충주		趙聖寬	道憲	합안	
石箴均		충주		趙性吉	文善	합안	
石載俊	慶秀/丙寅	충주		趙英來		합안	
石璣琰	永玉	충주		曹庸煥	極武/壬午	창녕	東日(漆谷)
成夏慶	禹若	창녕		趙應奎	文湏	합안	
孫匡鉉	德重	밀양		曹寅煥	義賓	창녕	漆谷
孫相奎	文汝	밀양		曹瑛	文輔	창녕	
孫正鉉	定甫	밀양		趙曦濟	明叟	합안	
孫晉蕃	錫汝/癸酉	경주	琴湖(慶州)	陳玉鍊	觀夫/己未	여주	義興
孫致鵬	翼溟/丁卯	밀양	義興	蔡相助	學汝/庚午	인천	丹陰
宋箕命	和伯	여산		蔡鼎基	禹三/壬子	인천	壯洞
宋箕洙		은진	友鹿	蔡河誠	敬九/庚辰	인천	壯洞
宋秉義	明老	은진		千載琨	鳴國	영양	
宋秉奎	景七	은진		崔洸述		경주	
宋錫憲	顯汝	은진		崔奎煥	聚五	경주	江洞
宋鎮宇	致和	여산		崔相契	子賢/戊子	경주	辰泉(大邱)
辛珏承	并玉/丙子	영월	第西(慶州)	崔相洛	叔武/甲申	경주	杏東(河陽)
申達均	子誠	평산		崔相曦	鳳輝/癸未	경주	杏東(河陽)
辛達承	學如/丁卯	영월	第西(慶州)	崔義煥	致庸/己卯	경주	江洞
申達鉉	善克	평산		崔日浩		영양	
申道澈	汝一/壬午	평산	新塘(大邱)	崔日洪	景三	영양	
申東烈	道卿	평산	玉浦	崔在奎	元弼/壬子	경주	杏東(河陽)
申東佑	致亨	평산	玉浦	崔廷翰	季鷹/乙巳	경주	江洞
申隣轍	聖奎	평산	玉浦	崔祚應	可允	경주	伊溪(漆谷)
申普均	德甫	평산		崔鍾萬	聖洪/甲戌	경주	杏東(河陽)
申相圭		아주	鳴湖(義城)	崔俊淑	德立/丁巳	경주	檀田(大邱)
辛碩根	性有/戊寅	영월	第西(慶州)	崔駿鎬	明國/庚午	용궁	池洞(軍威)
申錫義	永三/庚辰	평산	扶溪(義興)	崔瑄煥	明彦/戊辰	경주	江洞
申郁均	致和	평산		崔鶴教	翰汝	경주	玄風
辛郁善	聖文/丁巳	영월	第西(慶州)	秋教信		추계	
辛翼燮	乃鉉	영월	慶州	秋文求	伯能/南度	추계	
申翊澈	玄五	평산		秋秉權	乃範	추계	伊川(大邱)
申廷植		아주	鳴湖(義城)	秋秉秀		추계	伊川(大邱)
辛彩承	華遠	영월	慶州	秋秉杓	乃罍	추계	伊川(大邱)
辛河燮	大鉉	영월	慶州	秋陽求	可皞	추계	伊川(大邱)
辛學洙	性源/丙午	영월	第西(慶州)	秋任求	陽憲	추계	伊川(大邱)
辛海根	文七	영월	慶州	秋鎮求	伯敬	추계	伊川(大邱)
申鉉求	自如	평산	黃靑	秋致求	伯能	추계	
申鉉斗	昇三	평산		表敬弼	敬玉/辛卯	신창	城山(大邱)
申鉉穆	晦仲	평산	金山	表宅敬	伯玉/乙酉	신창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성명	字/生年	본관	거주
申鉉穆	敬補	평산	智妙(大邱)	表守命	善玉/庚寅	신창	城山(大邱)
申鉉福	源甫	평산		表鍾玟	和日/丙辰	신창	
辛濠承	賢俊	영월	慶州	夏東奎	聚五/癸酉	달성	晩村
辛晦根	盛木/辛亥	영월	第西(慶州)	夏東箕	聖範/庚午	달성	晩村
沈光澤	致德/庚申	青松	青松	夏東鳳	學五/己卯	달성	晩村
沈能沂	聖與/癸酉	青松	德川(青松)	韓正圭	子三	청주	比安
沈相完	致璧/丙辰	青松	西部(善山)	韓正秀	俊彦/戊辰	청주	比安
沈瑀澤	禹玉/壬戌	青松	德川(青松)	韓澄錫		청주	
沈宜燾	敬覆/壬申	青松	德川(青松)	許權	衡仲	김해	
沈廷燮	敬順/癸未	青松		許鈴		김해	
沈宗燮	道心/辛酉	青松	青松	許魯性	文極/癸亥	김해	仙源(大邱)
沈宗澤	漢朝/癸酉	青松	德川(青松)	許柄		김해	
沈曦		青松		許補		김해	
安敎鉉	聖元/甲津	경주	九溪(慶州)	許椽		김해	
安炳鎬	允卿	순흥		許淑	清哉/辛巳	김해	仙源
安用善	德明/戊午	죽산	星州	許植	舜三/癸丑	김해	
梁慶龍	雲卿	남원		許湜	清汝/壬午	김해	壯洞
梁基韶	聖淳/戊寅	남원	淸道	許沈	若汝/庚辰	김해	壯洞
梁基泰	元吉	남원		許泳		김해	
楊在淇	龜瑞/戊辰	중화	池山	許栢	春伯/戊寅	김해	壯洞
楊在萬	春可/己卯	중화	池山	許柔		김해	
楊在淳	存卿	중화	池山	許瀛	泳夫/壬午	김해	望亭(大邱)
楊在殷	尹弼	중화	池山	許杓	孝元/己巳	김해	
楊在湖	汝五/壬午	중화	池山	許浩		김해	
楊在渙		중화	池山	玄爽健		연주	京
楊在輝	義圖/壬戌	중화	池山	玄燦鳳	文可	연주	
楊春發	靑汝	중화		洪榮杓	致圭	남양	
呂柄斗	會淑/己卯	성주	薪田(大邱)	黃甲性	乃明/甲戌	창원	
呂柄斗				黃甲性		창원	慶山
呂相熏	周瑞/己卯	성주	薪田(大邱)	黃佑性	乃吉	창원	
呂昌會	應天/丙辰	성산	樹村(星州)	黃智秀		창원	